

# 줄어든 추석 온정... 쓸쓸한 복지시설

### 불황에 몇년전부터 개인 후원·방문자 급감

### 후원품 없어 직원들이 십시일반 선물 마련

연중 어느 때보다 풍성해야 할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광주지역 복지시설에는 온정의 손길이 줄어 어느 해보다 쓸쓸한 명절을 맞고 있다.

복지시설들은 해가 지날수록 이웃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사회적 분위기와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후원물품과 방문신청이 많이 줄어들면서 형편이 넉넉지 않은 복지시설과 어려운 이웃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추석을 맞아 한가위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광주시 북구 A복지관 관계자는 7일 한숨을 내쉬었다. 명절 때면 개인과 기관 곳곳에서 답지하던 과일과 쌀 등 후원 물품이 몇 해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올해는 거의 끊기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결국 A복지관은 한가위 축제를 앞두고 직원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으기로 했다. 추석만큼이라도 이용자들에게 따뜻한함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다.

A복지관 관계자는 “그나마 해마다 잊지 않고 찾아주는 단체가 있어 다행”이라며 “단체 후원이 꾸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주 애육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명절을 맞아 기관이나 단체에서 보내오는 후원물품이 특별히 없는 상황이다. 얼마전 3개 단체가 자원봉사를 하고 간 개 전부터.

애육원에는 취학 전 유아부터 대학생까지 아동과 청소년 70여명이 생활하고 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부모 곁을 떠나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도 있지만 연고자가 한 명도 없는 아이들도 있다.

줄어든 후원물품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찾아오지 않는 방문객이다. 명절이면 곳곳에서 가족, 친구와 찾아와 저마다 가슴 아픈 사연을 갖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을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다.

애육원 관계자는 “명절만 되면 찾아오

는 이들로 시설이 복적이던 때가 그리다”며 “올해는 아이들과 나가 영화라도 한 편 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장애인거주시설인 귀일민들레집도 좀처럼 추석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 몇 해전만 하더라도 이맘때면 과일과 라면 같은 위문품이 줄을 이었지만 올해는 과일 1~2박스까 전부터. 이마저도 함께 생활하고 있는 60여명이 함께 나누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다. 그나마 광주시에서 1인당 3만5000원씩 지원되는 명절 위로금이라도 개인별 통장으로 입금해줄 계획이다.

귀일민들레집 관계자는 “함께 생활하는 이들에게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해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사랑으로 빚어오” 7일 광주시 북구 매곡동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최상준) 회관식당에서 열린 ‘추석맞이 송편나눔행사’에 참가한 봉사자들이 800가구에게 전달할 송편을 빚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전남 터널사고, 여수 최다

### 1년간 13건중 11건...치사율 일반 교통사고의 2.4배

터널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의 2.3배에 달할 정도로 치명적인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는 터널 사고가 여수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터널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는 고속도로를 제외한 국도

터널에서 최근 1년간 1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2명이 숨지고 18명이 부상을 당했다.

광주·전남 터널 사고는 여수지역에 집중됐다.

여수 대표터널 4건(3명 부상), 마래터널 3건(1명 사망 8명 부상), 엑스포 터널 2건(2명 부상), 취적터널 및 울촌터널 각각 1건(2명 부상) 등 지난 1년간 터널사고 13건

중 11건이 여수에서 발생한 것이다. 나머지 2건의 사고는 해남 구시터널(3명 부상), 진도터널(사망 1명)에서 일어났다.

지난 2011년 이후 8월말 기준, 전남지역 터널에서는 총 20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1명이 숨지고 55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100건당 사망자수인 치사율은 전남지역 터널 사고의 경우 무려 5.5%로,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인 2.25%의 2.4배에 달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국내 터널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2957건으로 집계됐다. 이 사고로 150명이 숨졌고 6753명이 부상당했다. 연간 단위로 환산하면 매년 터널 교통사고로 30명이 사망하고 1350명이 부상하는 셈이다. 최근 5년간 전국 터널 교통사고 치사율은 5.07%였다.

안호영 의원은 “터널 사고는 대피 장소가 제한적이고 뒤에서 오는 차들이 앞의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망 등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데도 재난안전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10    몰림 12:06  
해질 18:50    달림 22:54

마스크 준비하세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구름많음	20/29	보성	구름많음	17/28
목포	구름많음	21/28	순천	구름많음	20/30
여수	구름많음	22/27	영광	구름많음	18/29
나주	구름많음	18/29	진도	구름많음	20/28
완도	구름많음	20/28	진주	구름많음	19/29
구례	구름많음	17/30	군산	구름많음	19/28
강진	구름많음	18/29	남원	구름많음	19/28
해남	구름많음	18/29	축산도	구름많음	20/26
장성	구름많음	17/29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서~북	0.5	서~북서	0.5
남부	면바다	남서~서	0.5~1.0	서~북서	0.5~1.0
남해	앞바다	북서~북	0.5~1.0	북서~북	0.5~1.0
서부	면바다(동)	북서~북	1.0~2.0	북서~북	1.0~1.5
남부	면바다(서)	북서~북	1.0~2.0	서~북서	1.0~1.5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5:55	11:07
		18:33	23:34
여수		00:17	06:17
		12:49	18:56

◇주간 날씨

9(금)	10(토)	11(일)	12(월)	13(화)	14(수)	15(목)
20/30	20/29	20/29	20/30	20/29	20/28	19/28

◇생활지수

	주의
	식중독
	높음
	자외선
	한때나쁨
	미세먼지

## 코레일 추석 열차 호남선 66회 증편

코레일은 오는 13~18일을 추석 특별 수송 기간으로 정하고 KTX와 일반열차 운행 횟수를 평소 368회보다 9.3% 늘린다고 7일 밝혔다. 코레일은 추석 수송 기간 전년 대비 4.1% 증가한 306만명을 수송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석 연휴 기간 호남선의 경우 평소 618회이던 것이 10.6%(66회) 늘어난 684회(일평균 114회) 운행된다. 호남선 KTX는 평소 390회(일 65회) 운행하던 것이 30회 늘어난 420회(일 70회), 일반 열차의 경우 228회(일 38회)에서 264회(일 44회)로 증편된다.

추석 명절 기간 승차권 예매율은 지난 6일 오전 9시 기준 69.3%로 전체 199만석 중 138만석이 발매됐으며, 61만석이 남아 있다. 주요 노선 예매율은 호남선 69.1%, 경부선 71.5%, 동해선 72.3%, 경전선 65.7%, 전라선 74.4%, 기타 60.1% 등이다.

코레일은 추석 전날인 14일 서울로 올라오거나 추석 다음날인 16일부터 18일까지 지방으로 내려가면 일부 KTX 열차 일반실 운임의 40%를 할인하는 특별 상품도 8일 오전 10시부터 12일까지 한정 판매한다. 자세한 사항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 또는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88-7788)로 문의하면 된다. /김형호기자 khh@

## “불법·비리 지방의원 근절대책 마련하라”

### 광주시민단체협성명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7일 불법·비리 행위를 저지른 광주시의회, 구의회 의원들을 퇴출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광주시의회 상반기 의장이 사학비리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이후 취업 명목으로 뇌물을 받아 구속된 구의원, 타기관에서 여행경비를 받은 시의원 등 비리가 연속

터져 나왔다”며 “주민에 봉사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앞장서야 할 지방의원들이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잣대에만 눈독들이며 각종 불법·비리에 연루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마지막으로 “지방의회는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비리의원 소속 정당도 출당을 포함한 강력한 징계를 통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민기자 kki@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COLLEGE EDUCATION

**진로·직업체험 박람회**  
2017학년도 전문대학 수시입시 박람회에 초대합니다!

**2016 대한민국 전문대학 EXPO**  
PROCOLLEGE EXPO 2016

**호남권** 일시 | 2016. 09. 09(금) - 09. 10(토)  
장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제1전시장

**전시내용** 직업체험관 | 2017학년도 수시 입시 박람회(호남지역) | 진로·진학상담관  
**프로그램** 개막식 | 2016 대한민국 실용음악 페스티벌(광주 본선) | 특별공연(울랄라세션) | 진로특강

참가접수 : 공식홈페이지 <http://expo.procollege.kr>    \* 전시내용 및 프로그램은 주최측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